

진주의 목공예 문화상품 연구

박우양 · 이형숙 · 문선옥
(경상대학교 환경임산공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진주지역의 목제품 문화상품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목공예 문화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주는 서부경남에 위치하여 지리산이 근접하여 상질의 목재 수급이 용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통 목가구를 제작하는 소목장들이 많이 분포하여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목공예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진주는 축석루와 같은 관광명소와 개천 예술제, 남강 유등 축제, 진주 소싸움, 진주 논개제 등과 같은 문화행사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들과 관련된 진주 지역의 특산물인 실크와 같은 관광 상품들을 살펴보고 목공예 문화상품의 종류, 생산방식, 판매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진주시의 문화

2-1 진주실크의 발달사

실크는 기원전 1170년경 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하자 고조선으로 건너온 기자에 의해 처음으로 양잠과 비단 직조기술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비단 소비를 제한하여 직조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수직기 대신 역직기가 들어오면서 비단 비단직조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진주에 근대화된 비단공장이 들어선 것은 1910년경으로, 1912년경에는 기계를 이용하여 비단을 생산 하였고, 1935년경에는 인견을 생산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토질과 기후가 좋은 진주는 원료가 풍부하여 비단 생산 최적지로 1988년에는 국내 유일의 한국 견직 연구원이 설립되어 진주비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와 기술 개발에 노력 현재 진주비단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120여개 기업체에서는 양질의 비단을 구미 각국으로 수출하였다(진주시청홍보실자료, 2006).

2-2 진주 소싸움 유래

진주는 남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지 천년 이 되었으며, 문화 · 예술 · 충절 · 관광의 도시로 진주시에서는 먼 옛날로부터 전통 민속놀이로 소싸움이 시작되어 그 맥을 이어 왔으며, 전국 민속 투우 대회가 지난해까지 105회 정도 개최되었고, 현재 천수교 밑 남강변 둔치에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상설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다. 소싸움대회의 유래를 살펴보면 진주의 소싸움은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전

해지며 조선의 민속놀이로서 진주지방 소싸움 민속놀이가 언급될 정도로 그 유래가 깊은 소싸움 대회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진주시청홍보실자료, 2006).

2-3 개천예술제 유래

개천예술제는 1949년(단기 4282년)에 정부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 되었다. 그 이후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10.26을 제외 하고는 매년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맥을 이어온 국내 최대, 최고의 예술제이다. 1959년에는 영남예술제에서 개천예술제로 그 명칭을 바꿔 개최되었으며,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국가원수가 개막식에 참석하는 최초의 예술제였다. 25회를 맞는 1974년에는 순수예술의 대중화란 주제 설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으며 33회째인 1983년에는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개천예술제는 그 동안에 전통 예술 경연을 통해 우리의 예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지방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9회 짜인 1999년부터는 개천예술제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실을 상설 운영하여 행사의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전국 문화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에는 서제, 개제식, 예술문화행사 등 7개 부문에 60여개의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개천예술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진주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다(진주시청홍보실자료, 2006).

2-4 진주 논개 제

천년고도 진주는 예로부터 북평양 남 진주라 불릴 정도로 전통예술이 뛰어난 고장으로 유명하다. 진주의 뜻있는 문화 예술인들은 지역의 훌륭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과 진주정신을 포괄하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전통 예술 축제를 창제하기로 하고 그동안 별개의 행사로 각각 진행되어 오던 『의암별제』와 『진주탈춤마당』을 주축으로 하는 진주 논개 제를 만들었다. 진주 논개 제는 매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 3일간에 걸쳐서 호국충절의 성지 진주성에서 개최되며, 1868년 당시 진주목사 정현석이 창제한 것으로서 제향에 악, 가, 무, 가 포함되고 여성들만이 제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제례인 의암별제를 서막으로 진주오광대를 비롯한 민속 예술과 진주 기생들이 남긴 교방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이어지고, 탈춤과 대동놀이를 하나된 신명을 만들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정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진주 논개 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 축제로서 발전도 가능하리라 기대하며 또한 전통예술 위주로 봄에 열리는 논개 제는 순수예술 중심으로 가을에 열리는 개천예술제와 함께 진주를 문화예술의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는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진주시청홍보실자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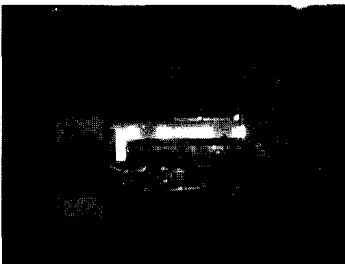
2-5 진주남강 유등 축제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풍습은, 1592년 10월 김시민 장군이 2만의 왜군을 맞아 싸울 때 성 밖의 지원군과 군사신호로 풍등(風燈)을 울리며 햇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막는 군사전술과, 진주성의 병사들이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도 쓰였다. 이듬해 전투 때 순절한 7만 명의 민관군의 애국 혼을 기리고 전통 유등놀이를 계승·보존하기 위해 오랜 세월 이어져 오던 유등 풍습을 1949년부터 유등놀이로 정착시켰고, 2000년부터 규모를 확대하여 축제로 치르고 있다. 진주성과 남강 일대에서 각자의 소망을 적어 넣은 소망 등 달기, 남강에 유등(소망 등) 띄우기 등의 문화권 국가의 전통 등을 남강에 전시, 창작등 만들기 및 전시, 가족·단체의 소망을 적어 하늘로 날리는 풍등(風燈) 날리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그 외 수상불꽃놀이, 진주농악한마당, 전국민속투우대회, 거리등 설치, 기타 민속 행사 등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남강 양안에서 아군 및 왜군 복장을 갖추고 등(아군 등, 왜군 등)과 불화살, 물대포, 조총, 햇불 등으로 진주성 대첩을 재현하고 있다. 한국·중국·타이완·일본·홍콩 등 각국의 대표적인 등을 남강에 설치하여 비교 관람할 수 있으며, 국내 각 지역의 전통등을 전시하여 볼거리가 풍성하다(진주시청홍보실자료, 2006).

3. 진주지역의 관광 상품 전시장 현황

3-1 진주 시청 홍보관

진주시 지역의 목공예품 구름함지, 목, 비밀목침, 반단이, 지위틀, 호침, 문갑, 머릿장, 찻상 등의 목공품이 전시 중이며 가격대는 10만원부터 500만원 이다. 재료는 느티나무 오동나무 가죽나무 먹감나무이며 진주지역의 공방작품들이며 보통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방운영을 하고 있다. 실크제품은 스카프 넥타이 한복원단 양장원단이주이다.



<fig. 1>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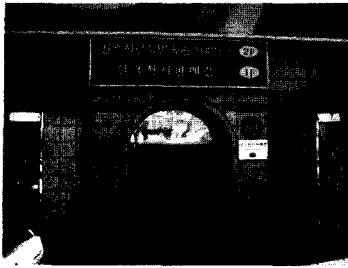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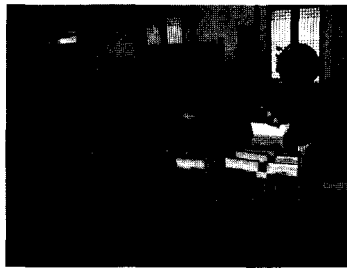
<Table 1-1>

실크제품	40%
목공예품	30%
기타상품	30%

3-2 진주 실크전시장



<fig. 4>



<fig. 5>



<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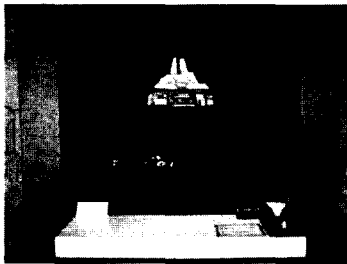
2층장.3층장 장롱 소품 차상세트 합 반달이 등 전시

<Table 1-2>

실크제품	60%
목공예품	30%
기타상품	10%

3-3 진주시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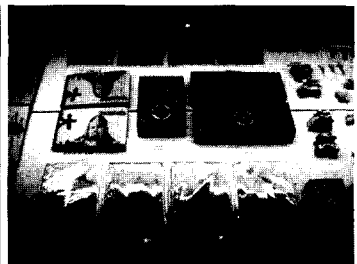
진주시 박물관 전시매장은 박물관의 이야기형태의 기념품



<fig. 7>



<fig. 8>



<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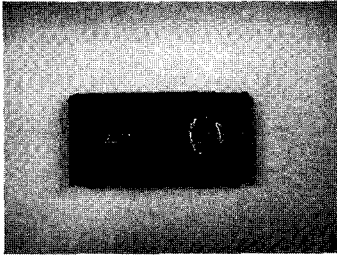
<Table 1-3>

실크제품	10%
박물관 관련상품	30%
액세서리	50%

4. 진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관광기념품 및 공방소품

진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은 <fig. 10> 부터 <fig. 13> 까지이며, 2004년도 진주공예품대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은 <fig. 14> 부터 <fig. 18> 까지이며, <fig. 19> 부터 <fig. 21> 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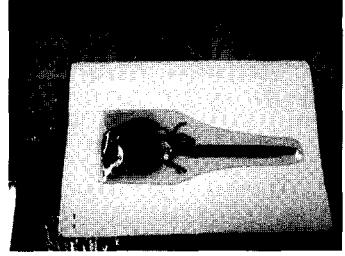
2005년도 진주공예품대전 출품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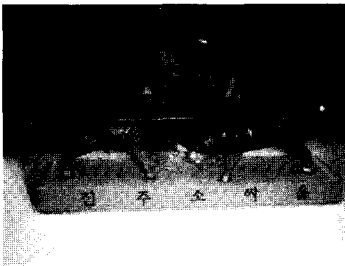
<fig. 10> (벡타이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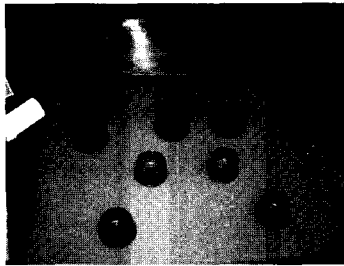
<fig. 11> (장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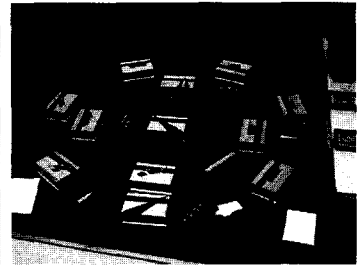
<fig. 12> (편지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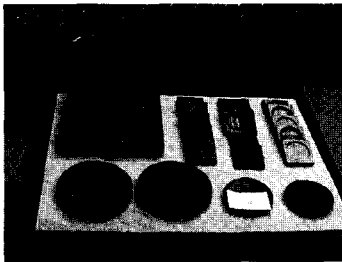
<fig. 13> (소싸움)



<fig. 14> (고판석 찻상셋트2004)



<fig. 15> (김병수 명함집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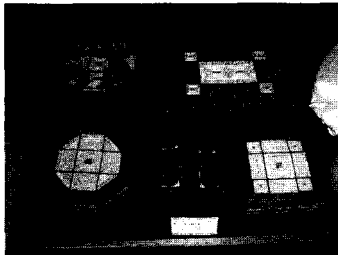
<fig. 16> (박우양 찻상셋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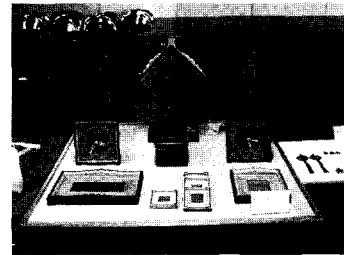
<fig. 17> (박윤기 찻상셋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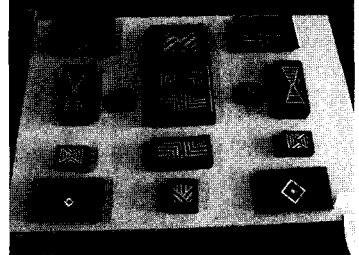
<fig. 18> (정진호 보석함 2004)



<fig. 19> (박윤기-찻상셋트 2005)



<fig. 20> (정진호 장식소품 2005)



<fig. 21> (조복래 찻상셋트 2005)

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은 문화에 비해 종류가 미비하고 가격대가 너무나 비싸다. 공예품

경진대회의 작품을 상품화 및 대량생산을 하여야한다. 대량생산함으로서 가격대를 3-4만원 선정도해야 판매가가능 할 것이다.

5. 결 론

진주시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은 진주문화에 비해 종류가 미비하며 포장디자인 및 목공예품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간편하게 소지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다. 목칠공예 관광 기념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예품 경진대회 결과물들을 상품화하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진주의 이미지를 더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관광기념품이란 ?

1. 상징성 2. 다른 관광지에서 볼 수없는 진기한 것.

구입목적

1. 선물 2. 장식성. 견고하고 실용적 4. 오랫동안 보존하기 편리한 것.

6. 참 고 문 헌

1. 진주시청 홍보실자료
2. 진주공예품대전 2004, 2005
3. 김동기 한국공예학회 1998
4. 조선의 민속놀이 (북한과학원 발간)
5.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12권, 21권)